제주풀무질은 인문사회과학 책방이에요. 책은 2,500권 남짓 있는데, 인문사회과학, 제주 관련, 시/소설/산문/고전/철학, 어린이 손님을 위한 그림책 그리고 생태/평화/인권/나눔, 크게 5가지 주제로 모아 두었어요. 1986년 서울 풀무질이 처음 문을 열었어요. 저는 그곳의 네 번째 일꾼이었어요. 그냥 책방이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. 인문사회과학 책방이어서 했어요.

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고 ‘이 땅에 내가 왜 사는지’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인문사회과학 책방이거든요. 산문과 소설의 판매 비중이 높지만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갖춰 두려고 애쓰고 있어요.

책방소개

제주풀무질

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799-4

스물여덟에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책방(서울 풀무질)을 시작했어요. 이제 (책방지기가) 오십여덟이니 30년 동안 쭉 책방 일만 했네요. 26년 2개월 11일 동안 서울에서 책방을 꾸렸어요. 그리고 2019년 제주로 와서 제주풀무질을 열었고요. 서울을 떠나며 책방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젊은이 세 분이 책방을 해 보겠다고 찾아왔어요. 덕분에 서울 풀무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. 살면서 제일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서울 풀무질 문을 닫지 않고 물려준 일인 것 같아요. “서울 풀무질과 제주풀무질은 어떤 관계예요?” 사람들이 물어요. 서울 풀무질과 제주풀무질은 동무 사이에요. 서울 풀무질 책방지기 세 분이 허락해 주어 제주 책방 이름도 풀무질이 되었어요.

책방지기 소개

• 책방지기와의 눈 맞춤

작은 책방은 손님과 눈 맞춤이 가능해요. 아마 마을 책방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별함 일 거예요. “저번에 추천 해 준 책 좋았어요” “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있나요?” 이런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어요.

• 어린이와 강아지 대환영

제일 귀하게 여기는 손님은 어린이예요. 다음이 강아지(반려동물). 그다음이 어린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른. 어린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. 작은 강아지는 품에 안고 오시는데 큰 강아지들은 차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손님들과 이야기한 후 책방에 데려오도록 해요.

• 책방 강아지, 광복이와 해방이

광복이와 해방이는 모두 제주에서 만났어요. 처음 만났을 때 광복이는 목에 철사를 두 겹이나 감고 있었어요. 8월 15일에 만나 광복이라 이름 지었어요. 책방을 좋아해 아침에 책방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책방으로 들어가요. 해방이는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책방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. 사람에게서 버려지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‘해방’이라 이름 지었지요.

• 책모임을 중히 여기는 책방지기

10개의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. 열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. 책을 못 읽어와도 타박하지 않고, 읽는 수준이 조금 낮게 보여도 내려보지 않으며,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책 이야기는 조금 곁가지로 나눠요. 책이 아닌 사람에 방점을 두면 어렵지 않아요.

우리 책방의 특별한 점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어린이, 강아지 그리고 어린이와 강아지를 사랑하는 어른

• 제주에서 만나게 될 인문사회과학 책이 궁금한 분

• 책방지기와 눈 맞춤 하며 즐겁게 책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

• 제주사람 허계생(허계생 말, 이혜영 글)

구좌읍 송당리에서 살아 온 허계생 이라는 분이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제주에서의 삶을 제주말로 쓴 것을 표준말로 풀어쓴 책이에요. 수눌음(품앗이라는 의미의 제주어) 이야기, 물이 귀했던 옛 제주의 일상 등을 만날 수 있어요. 폭폭한 삶이었을 텐데 허계생은 아픔다운 삶이었다 이야기해요. 제주의 자연 생태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.

책방지기 추천, 제주 관련 책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요.

• 매주 수요일은 쉬어요.

• 책방과 이웃한 곳에 카페 풀씨가 있어요. 책방지기 아들이 운영해요.

책방지기가 알려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

• 가는 곶 세화

가능한 유기농 밀가루를 쓰려고 노력하는 책방지기가 애정 하는 빵집. 유기견을 거두고, 길고양이를 돌보는 빵집 주인의 마음이 훈훈해요.

• 다랑쉬오름 둘레길

제주풀무질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. 오름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면 한 시간 정도 코스의 둘레길을 추천해요. 반려동물 입장을 제한하는 곳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산책이 가능해요.

• 세화 비밀의 숲(책방지기 가족이 붙인 이름)

책방에서 걸어서 5분 정도면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. 정확한 이름이 없는 숲이라 저희 가족은 세화 비밀의 숲이라고 불러요. 곶자왈처럼 나무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고, 숲속 가장 깊은 곳 청정지역에서만 산다는 뻐꾸기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. (\*글로는 설명이 어려워요. 책방에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)

\*사진제공 : 제주풀무질